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미치는 영향

유은지¹ · 지민경² · 민희홍^{3*}

¹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 ²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³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 Burnout in Dental Hygiene Students

Eun-Ji You¹, Min-Kyung Ji², Hee-Hong Min^{3*}

¹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Adjunct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Professor

³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lower school life burnout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school life burnout,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students' school life.

Methods: From August 1 to 30, 2022, 250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were conveniently extracted fro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Chungcheong, Gyeongsang, and Jeolla regions, an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ose who agreed to fill out the data.

Results: Factors influencing school life burnout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7.5%.

Conclusions: As a result,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a psychological educa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major satisfac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reduce school life exhaustion in order to control the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e students' school life exhaustion.

Keywords Clinical practice stress, College student burnout, Dental hygien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eceived on Jan 17, 2023. Revised on Feb 08, 2023. Accepted on Feb 08, 202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hmin1@hanmail.net)

I. 서론

대학생은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적응이 요구되는 연령의 집단이다[1]. 대학생활의 시기는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책임지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쟁사회에서 각자의 불투명한 미래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3].

소진은 스트레스의 장기화로 인해 정서적 또는 신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4]. 소진의 요인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1,5], 대학생의 주된 소진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난다. 이처럼 학교생활소진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피로감과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감, 정신적 소모 및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2]. 또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이 국가고시를 위한 전공이론과정 외에 향후 치과위생사로서의 업무를 위한 임상실습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치위생 교육과정 중 하나인 임상실습과정에서 학생이 겪는 스트레스로, 혼란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임상실습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6].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을 갖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전공에 대한 만족감도 낮아지게 된다.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생각한 전공에 관한 기준과 현재 자신의 전공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나타

내는 것으로[7], 학업 수행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공몰입을 상승시킨다[8]. 따라서 임상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사고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자본이 필요해 보인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며, 하위영역은 자기효능감과 희망, 그리고 낙관주의, 회복력을 포함한다[9]. 이는 4가지 하위영역의 상호작용으로 다차원적인 심리적 자원을 이루고, 이것이 한 개의 통합된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한다고 하였다[10]. 박 등[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희망과 회복력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자기효능감과 희망, 회복력이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과 장[11]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으며, 대학생활적응이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1,4,5,12-13], 연구도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등으로 다양했다. 황[1]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강과 김[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소진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정[12]의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이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은 적지 않게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지만[1,4,5,12-13],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진과 관련된 연구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가 학교생활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생활소진을 낮추는 요인을 확인하여 전공에 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22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경상·전라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

250명을 편의추출하여 연구목적과 작성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법으로 작성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0개(학교생활소진,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일반적인 특성)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78명이었고, 최종분석대상자는 181명이었다.

2. 연구방법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학교생활소진 20문항, 전공만족도 20문항, 긍정심리자본 18문항, 임상실습스트레스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소진은 황[1]이 사용한 대학생 학교생활소진 척도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하부요인은 학교생활회의, 학교생활 무기력, 수업 부적응, 진로 불안으로 구성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이와 강[14]의 연구 도구를, 긍정심리자본은 권 등[15]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이와 장[16]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소진,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 α 는 모두 0.9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변수의 점수는 산술평균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상' 68.0%, 학년은 '3학년' 85.1%, 성적은 '3.0-3.4점' 35.4%이었고, 동아리 활동은 '아니오' 78.5%,

거주형태는 ‘비가족과 함께’ 61.3%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60.2%이었다<Table 1>.

2. 변수의 평균점수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은 2.66점이었고, 긍정심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20	123	68.0
	≤21	58	32.0
Year	3	154	85.1
	4	27	14.9
Grade	≥2.9	26	14.4
	3.0-3.4	64	35.4
	3.5-3.9	58	32.0
	≤4.0	33	18.2
Club	Yes	39	21.5
	No	142	78.5
Residence type	With family	70	38.7
	not live with family	111	61.3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20	11.0
	Usually	109	60.2
	Good	52	28.7
Total		181	100.0

<Table 2>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College student burnout	20	1.00	4.80	2.66±0.74	0.938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8	1.00	5.00	3.54±0.63	0.953
Major satisfaction	24	1.00	5.00	3.64±0.61	0.957
Clinical practice stress	24	1.00	4.79	2.58±0.76	0.957

<Table 3>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llege student burnout	t or F(p)
Age	≥20	123	2.67±0.77	0.389
	≤21	58	2.63±0.67	(0.698)
Year	3	154	2.68±0.75	0.911
	4	27	2.54±0.64	(0.364)
Grade	≥2.9	26	2.75±0.78	0.925
	3.0-3.4	64	2.75±0.68	(0.430)
	3.5-3.9	58	2.59±0.69	
	≤4.0	33	2.53±0.88	

자본은 3.54점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3.64점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5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소진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소진의 정도를 보면, 주관적인 건강상태($p=0.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보통’과 ‘ 좋음’보다 ‘나쁨’에서 학교생활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소진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변수 간의 상관분석

학교생활소진과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전공만족도($r=0.466$), 긍정심리자본($r=0.41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r=0.489$)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전공만족도는 긍정심리자본($r=0.719$)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r=0.343$), 긍정심리자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0.206$)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생활소진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Table 3> Continued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llege student burnout	t or F(p)
Club	Yes	39	2.49±0.83	-1.588
	No	142	2.70±0.70	(0.114)
Residence type	With family	70	2.71±0.76	0.709
	Not live with family	111	2.63±0.69	(0.479)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20	3.00±1.08 ^a	3.675
	Usually	109	2.68±0.64 ^b	(0.027)
	Good	52	2.48±0.73 ^b	

^a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e) for three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4> Correlation of college student burnout, major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Variables	College student burnout	Major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College student burnout	1			
Major satisfaction	-0.466**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416**	0.719**	1	
Clinical practice stress	0.489**	-0.343**	-0.206**	1

** $p < 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 Burnout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392	0.438		7.738	0.001		
Age_dummy ($\geq 20/\leq 21$)	-0.003	0.104	-0.002	-0.028	0.977	0.850	1.177
Year_dummy (3/4)	0.068	0.141	-0.033	-0.479	0.632	0.796	1.256
Grade_dummy1 ($\geq 2.9/3.0-3.4$)	0.009	0.148	0.006	0.059	0.953	0.398	2.510
Grade_dummy2 (3.0-3.4/3.5-3.9)	0.093	0.148	0.059	0.630	0.530	0.418	2.394
Grade_dummy3 (3.5-3.9 ≤ 4.0)	-0.009	0.165	-0.004	-0.052	0.959	0.495	2.020
Club_dummy (Yes/No)	0.071	0.116	0.040	0.607	0.545	0.878	1.139
Residence type_dummy (With family/Not live with family)	-0.108	0.093	-0.072	-1.158	0.249	0.973	1.028
Subjective health status_dummy1 (Bad/Usually)	0.148	0.152	0.063	0.973	0.332	0.880	1.136
Subjective health status_dummy2 (Usually/Good)	0.098	0.111	0.060	0.881	0.380	0.795	1.258
Major satisfaction	-0.256	0.114	-0.211	-2.240	0.026	0.421	2.373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228	0.108	-0.195	-2.106	0.037	0.432	2.313
Clinical practice stress	0.367	0.065	0.381	5.690	0.001	0.829	1.206

$R^2=0.375$, adjusted $R^2=0.330$, $F=8.392(p<0.001)$, Durbin-Watson: 1.925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0.05$

분석을 수행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925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398-0.973으로 나타났으며($F=8.392$, $p<0.001$), 분산팽창인자(VIF)는 1.028-2.51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지본($\beta=$

-0.195 , $p<0.037$), 전공만족도($\beta=-0.211$, $p<0.026$), 임상실습 스트레스($\beta=0.381$, $p<0.001$)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3.0%이었다<Table 5>.

IV.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을 낮추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치위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은 2.66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1]의 연구에서 2.6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건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국가고시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부담감 등이 일반적인 대학생들 보다 엄격한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소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어 본 연구를 뒷받침할 추가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전공만족도는 3.64점이었으며, 이등[17]의 연구에서 3.7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후 취업문제에 부딪히는 일반대학생들 보다 보건계열인 치위생학과가 안정된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국가고시에서도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 점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긍정심리자본은 3.54점으로, 박 등[8]의 연구에서 3.5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 취업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것으로, 대학생활 과정을 취업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졸업 후 내가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보다 진로가 안정적으로 정해진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다른 학업성취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상승시키기 위한 학생-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취업에 관하여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58점으로 나타났고, 이[5]의 연구에서 2.56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고, 최[18]의 연구에서 2.7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처음 임상현장에서 실제 진료과정을 지켜보며 경험하는 과정으로, 신입생 때는 대부분 이론수업을 통한 전공과목을 배우게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 임상실습을 통해 학업적 지식을 이용한 진료과정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와 치과위생사의 상호작용

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보게 된다. 임상실습은 실습지도자와의 갈등도 있지만 졸업 후 치과위생사가 되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미리 숙지해야 할 내용이나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실습 중에는 실습지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한 실습 커리큘럼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소진의 차이를 보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나쁨’에서 학교생활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소진은 신체적, 정서적인 고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대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과로 학업에 대한 성취감도 낮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따라서 지도교수와 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현재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도해야 한다. 학교생활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공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소진은 낮아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소진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1]의 연구결과에서 전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소진과 음의 상관관계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소진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었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3.0%이었다. 또한, 김 등[19]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면 실습만족도가 높아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소진을 낮추는 데 전공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소진을 낮추고,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및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공만족도는 상승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어려운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나 의료기관별 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웠던 점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하여 연구한 결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치위생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

활소진에 관한 연구를 처음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소진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생활소진을 낮추는 요인을 확인하여 전공에 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022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경상·전라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 182명을 편의추출하고 자기기입식 설문법으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은 2.66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3.64점이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3.54점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58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소진의 차이를 보면, 주관적인 건강상태($p=0.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나쁨’에서 학교생활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3. 학교생활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공만족도($r=0.466$), 긍정심리자본($r=0.41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r=0.489$)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0.211$, $p<0.026$), 긍정심리자본($\beta=-0.195$, $p<0.037$), 임상실습 스트레스($\beta=0.381$, $p<0.001$)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3.0%이었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는 전공 교과과정의 개선과 학교생활소진을 낮출 수 있는 심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Whang SA; The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ollege student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9(2):73-85, 2021. DOI: 10.17333/JKSSN.2021.9.2.73
2. Jung JH, Choi SY;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academic burnout of university student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7(3):137-146, 2020. DOI: 10.20496/cpew.2020.7.3.137
3. Lim HJ, Hwang SH, Lee JY; Effect of ego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among graduati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0(4):88-95, 2022. DOI: 10.33615/jkohs.2022.10.4.88
4. Kim SJ, Jeong KS; Mediating effect of economic distress and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J Health Info Stat* 46(3): 293-301, 2021. DOI: 10.21032/jhis.2021.46.3.293
5. Kang MR, Kim IS;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6):327-338, 2021. DOI: 10.22251/jlcci.2021.21.16.327
6. Lee MR;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on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2):173-180, 2021. DOI: 10.22156/CS4SMB.2021.11.02.173
7. Shin AR, Shim HS; The effect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6):713-722, 2022. DOI: 10.22251/jlcci.2022.22.16.713
8. Park JH, Cho MS, Jang KA;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e and work values on major commitment by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0(1):46-53, 2022. DOI: 10.33615/jkohs.2022.10.1.46
9. Park JH, Jang KA, Cho MS;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6):193-199, 2020.
DOI: 10.22156/CS4SMB.2020.10.06.193
10. S. Hobfoll;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4):307-324, 2002.
DOI: 10.1037/1089-2680.6.4.307
11. Shin HH, Jang SH;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esilience on adjustment of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2): 321-329, 2022.
DOI: 10.15207/JKCS.2022.13.02.321
12. Jung KI; The influence of clinical violence experience, response to violence experience,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1):571-580, 2022.
DOI: 10.5392/JKCA.2022.22.01.571
13. Kim GR, Kim NY, Seo EJ, Lee SA, Lee HJ, Jeong GW, Jeong EJ, Lee BH;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s on academic burnout and sleep qualit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4(2):84-92, 2016.
14. Lee JY, Kang YJ;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en majoring in health scie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8(4):16-24, 2020.
DOI: 10.33615/jkchs.2020.8.4.16
15. Kwon SH, Hong MJ, Ryu M, Shin HY; Influ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haracter on caring efficiency in nursing students. *JKASNE* 28(4):411-420, 2022.
DOI: 10.5977/jkasne.2022.28.4.411
16. Lee YJ, Jang HJ;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4):429-434, 2021.
DOI: 10.17703/JCCT.2021.7.4.429
17. Lee JW, Choi HN, Jung UJ, Kim M; The convergenc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0):113-120, 2021.
DOI: 10.15207/JKCS.2021.12.10.113
18. Choi JH; Convergence relationship study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79-85, 2019.
DOI: 10.15207/JKCS.2019.10.1.079
19. Kim SK, Kang RU, Kim EY, Moon JE, Jang JH, Jung ES;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 Korean Soc Dent Hyg* 18(2):239-51, 2018.
DOI: 10.13065/jksdh.2018.18.02.239